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지부장
김 락 형

誠實 그리고 奉仕

역사는 우리에게 위기와 시련을 안겨준다.
그러나! 이에 도전과 응전 그리고
도약과 극복의 기회도 함께 부여받고 있다.

우리 대한산업보건협회도 예외는 아니다.
명암이 교차하던 30여 성상의 긴 세월속에서

이제서야 밝은 터전이 마련되어진 셈이다. 그것은?
내적으로는 600여 가족의 금지와 자부심을
담은 청사를 지부와 본부가 순차적으로 마련을 하였으며
외적으로는 산업의학의 전문의 제도와
산업의학의 분과학회가 공식으로 탄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도 이렇듯 확고한 기초위에서
새로운 1,000년을 시작하는 Millennium
祝祭 대열에 당당한 일원으로
새역사 창조에의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장담하자.

여기까지 이르기에 크게 工獻하신 바
曺圭常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임원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존립이야말로
다른 법인단체와는 달리 정부의 자원이나
특정인의 투자자를 Boss로 한 체제가 아닌

우리 구성원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성실하게 헌신하여 온 바에 따라
그 덕(德)의 누적으로 여기에 이르니

역사적으로 값진 산물인 동시에
누구나가 공인하는 국가에 기여도가 높은 크나큰 기관으로
성장하여 왔던 것이다.

그 조직속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다시 가다듬고 '성실한 봉사'를 통해
이 나라 전문직업인으로서 각자의 소임을 다 하는
진솔한 삶의 보람을 찾자.

誠實 그리고 奉仕

옛 사람들은 하나의 좌우명(座右銘)을 갖고 살았다.
한(漢)나라의 최원(崔瑗)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좌우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돌이나 쇠붙이에다 생활의 지표가 되는
말을 새기고 그것을 자기 자리(座)의 오른쪽(右) 편에 두고
밤·낮으로 반성의 자료로 삼는 격언을 말한다.

여기서 좌우명이란 말이 생겼다고 한다.
쇠나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또는 새긴 글자를
명(銘)이라고 한다. 명은 새길 명(銘)자이다.

학문에 명각(銘刻)이란 말이 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을 명심(銘心)이라고 한다.
우리도 저마다 인생의 좌우명을 하나씩 갖고 살아가자.

고대(古代) 희랍의 철학자인 '퓨론(Pyrrhon)'은
'성실(誠實)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그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그는 항상
'나는 성실(誠實)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삼았다'
라고 역설하였다.

성실에는 두 가지 큰 뜻이 있다.

- ① 속이지 않는 것이다. 거짓이 없는 것이다.
도덕적인 개념으로 풀이한다.
- ②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거나
나의 양심껏, 능력껏, 성심성의껏 노력하는 것이다.
기능적인 개념으로 풀이한다.

성실의 바탕은 믿음 즉, 참이고 정직을 말한다.
너의 참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라.

영국(英國)의 유명한 석학(碩學)
토마스 헉스레이(Tomas Hoxray)는
'성실은 도덕의 핵심(核心)' 이라고 풀이하였다.

도덕의 본질이 성실이라는 뜻이 되겠다. 그것은?
빛이 태양의 핵심이라는 것과 같고
짠 것이 소금의 핵심이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성실은 곧 참이요 거짓과 속임이 없는 것이다.
성실의 반대는 허위요 거짓이다.
성실은 만(萬)가지 선(善)의 원천이요.
거짓은 만가지 악(惡)의 근원이다.

도덕은?

대인관계와 대물관계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사람을 대할 때는 기본원리가 무엇이고
일을 처리할 때는 기본원리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도덕이라고 한다.

또한 성실은

대인원리와 대물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한
결론적인 대답이라고 하였다.

참 마음을 갖고, 참 생활에 힘쓰고,
참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며, 참의 자리로 돌아가자.

참의 인격자가 되자. 참의 정신으로 일을 하자.
참의 공부야말로 인격적인 도덕공부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참이 없는 사랑, 참이 없는 우정, 참이 없는 교육,
참이 걸여된 정치, 참이 빠진 봉사(奉仕)
이는 모두가 위선이요 허망한 것이다.

거짓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겠는가?
거짓의 산물치고 이롭고 좋은 것이 없다.

성실에 가까울수록 인생은 알차고
성실에서 멀어질수록 인생은 허망하다.

그러기에 성실은?

천하 만인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대도요
동서고금을 통한 생활의 진리며,
인간에 있어서의 보편타당한 가치인 것이다.

참의 진리를 애써 터득하자.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실, 봉사'를 공행실천함으로써
나와 더불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탱하여 주는
유일한 낙원 우리 일터(대한산업보건협회)의
송고한 업무이념을 새롭게
새기면서 아끼고, 가꾸고 위하는 지성을
다하여야겠다는 뜻은 결코
이 사람만의 염원은 아니리라.

妄言多謝

신록이 어울어진 5월 가정의 달